

“원활한 인수인계 최소 1주일 인사 텀 필요”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하반기 인사발령 종료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덕진 양대 구청의 하반기 인사가 이뤄졌다. 공무원 일과 관련하여 '인수인계가 X판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충 하다가 보면 알겠지', '같은 팀의 누군가가 가르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나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후임자는 덩그러니 새발령지에 남는다고 한다.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잦은 인사로 인해 시민들도 번번이 초보 공무원을 마주해야 한다. 시민들이 가장 짜증나는 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것과 전임자 핑계대는 것이라 한다.

급하게 새 부서로 배치된 후 적응하기 바쁜 두 공무원간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인수인계도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는 게 현실", "바뀐 공무원이 일을 몰라서 민원인이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 등의 글들이 있다.

업무 처리의 누락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유형 무형의 피해가 발생한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2017년 10월) 업무인수인계 부실 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업무 인계 인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는 공무원의 기본이므로 전 부처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지적했었다.

한편 10일 인사가 마무리된 전주시 완산구청은 100 여명의 인사가 이뤄졌고 밝혔다. 대인 전담 부서인 행정복지센터는 19곳을 보유하고 있다. 각 복지센터에 업무관련 사례집은 중앙에서 배포해서 민원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 후 1주간은 업무인수인계가 바



완산구청



덕진구청

쁘게 이뤄지고 있다. 인사발령이 1일 전 나는 경우 인수인계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며 적어도 1주일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전한다.

덕진구청에는 90여명의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산하에 16개 행정복지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 사례집은 중앙에서 시달 되면 해당 과에서 정리해서 각 동에 지급해서 비치한다고 한다.

현재 인수인계에 여념이 없으며 인사발령이 전일 나는 경우 인수인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덕진구청은 수시로 바뀌는 인사 이동시 인수인계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앞으로 업무시 발생하는 출력물이

나 메모, 서류 등을 버리지 않도록 하여, 각 사무 책상에 전용 파일을 비치해서 보관하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후임자가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업무 파편을 모아서 업무를 재구성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신입 인수의 업무습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양 구청 공히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 정도의 인사 텀이 필요하다"며 "인사 이동 및 인수인계 이후 각종 실무서 시행 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인사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협회·기업체·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가 지난 18일 마더요양원에서 2024년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 최선”

덕진회, 월례회의 갖고 하반기 운영방안 등 논의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협회·기업체·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회장 채창수)가 지난 18일 마더요양원에서 2024년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덕진회 임원진 및 회원, 한병삼 덕진구청장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상견례 시간을 가졌으며, 상반기 덕진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하반기 덕진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회원 동정을 나누고 덕진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회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서로를 한층 더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채창수 덕진회 회장은 "2024년 상반기는 덕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하반기에도 우리 덕진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덕진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협력해 주시는 덕진회 임원진 및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덕진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살기 좋은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왕의공원 프로젝트 성공 위한 고도 지정 '총력'

전주시, 학술대회·시민공청회 등 지속 추진

전주시는 왕의공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핵심사업인 후백제와 조선왕조 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왕의공원 프로젝트'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유적과 문화재를 하나로 묶어 전주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2년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고도의 추가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고도 지정의 기준이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규정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개 고도 외에도 최근 경북 고령이 추가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동고산성 등 후백제 왕도 유적을 중심으로 전주고도의 실체와 역사성을 확보하고, 핵심 유적과 역사축·역사 구역을 통합한 전주고도 골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재 '전주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간보고 단계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주 도시의 중심 영역이 통일신라시기 현재의 구도심에서 후백제 시기 농송동 일원으로 이동했고, 전주

의 지형과 도로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를 조성했던 축과 공간배치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전주부사'의 성과 지도와 그동안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농송동 일원을 중심으로 후백제의 궁성과 도성이 조성됐을 것으로 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고도로 지정된 지역의 관련 예산은 3000억 원~5000억 원 정도로, △경주의 월성 복원 정비사업 △부여의 사비 도성의 원형발굴 정비사업 등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사업과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시는 전주고도 지정을 통해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공원 프로젝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후백

제의 왕도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도 지정을 위해 오는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도 심의가 통과되면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 지정이 최종 확정된다.

시는 오는 9월과 12월에는 각각 '완산주 전주의 중심과 주변', '전주고도 지정의 당위성과 의미'를 주제로 2차례 학술대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로 유서 깊고 의미 있는 역사도시"라며 "전주를 고도로 지정해 시가 가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고, 문화관광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해 전주가 발전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서신도서관, 서양 고전 강좌 '지혜학교' 운영

전주시 서신도서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24년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4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양 고전 강좌를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혜학교' 사업은 시민들에게 대학교 교양 수준의 인문학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지혜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첫 강의에는 반덕진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시민의 교양과 지혜를 위한 고전 산책' 수업의 첫 강의를 진행했다.

반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 △'오뒷세이아'의 오뒷세우스 △'오이디푸스 왕'의

오이디푸스 △'아르고호 이야기'의 이아손 △'아이네이스'의 아이네이스 △'신곡'의 단테 등을 주제로 고대와 중세의 문학 작품 6권을 각각 2주씩 총 12회에 걸쳐 함께 공부하게 된다.

반덕진 교수는 "이번 도서관 지혜학교를 통해 수강생들이 서양의 고전을 산책하고 사색하며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민생·안전 중심 예산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전주시의회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앞두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안전 중심 예산 편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

22일부터 오는 25일 전주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송영진(초촌·여의·혁신동(사진))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은 "예산의 적법성과 효율적 집행 여부, 혈세 낭비 사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심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주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성 확보를 통한 재정 자립도 확립, 민생·안전을 우선으로 한 예산 심사, 분별력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볼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기준을 민생안정에 두고, 필수 예산과 지속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 순서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수 부족과 과다 지출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다"며 "5년, 10년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보조금을 줄여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등 분별력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공약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과 공익을 우선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웃을 배려해 줘야 돼" 식의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힘들더라도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결특위는 22~25일 1,267억원의 전주시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달 초 새로 구성된 후반기 예결특위는 송 위원장과 이보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현,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김현덕, 윤혜정, 이국, 이남숙, 이상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